

승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예수 승천 대축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활과 승천 사이 기간이 40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사도 1, 3). 40일이라는 숫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닦으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징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느님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인성을 지니신 채로 승천하시어 지금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한 일치를 이루시며 세상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임마누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늘의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늘이다.”라고 말했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어 우리 각 사람 안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때부터 제자들은 주님을 감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던 시기를 지나,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나 기이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나려 해서 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하느님이 이 지상적인 차원에 가두어 두려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어떤 형상은 하느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 하느님 자신을 온전히 만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인성을 지니신 채로 삼위 하느님의 위치로 가셨기 때문에 같은 인성을 지닌 우리 인간에게도 한없는 영광과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머리아신 그리스

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깊은 지혜이고 통찰력이라고 바오로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에페소서1,17이하).

즉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 되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 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축복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희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분이 맡기신 인류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예수승천 축일에 함께 다짐해 봅시다.

이찬우 요셉 신부님

승천은 새로운 강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확신과 희망을 안겨 주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승천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 다음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의 예표요 보증인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다니 7,13). 유대인들은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하늘에 떠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한 작가는 루가뿐입니다. 루가는 사도행전과 루가복음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루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사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은 먼 나라에 계셔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별된 것이 아니라 새롭고도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의 슬픈 장면이 아니며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먼 거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오셔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천은 떠나심과 동시에 새롭게 찾아 주신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는 이야기 끝에 주님은 자기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고생이 많 았고 너무도 서운함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애의 어느 한 시기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며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거나 어려운 때, 그리고 슬프거나 외로울 때 주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승천 대축일에 산이나 들에서 아와 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념이지 산이나 들만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또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또 그 분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어떤 장소와 시간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원하는 시간마다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 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았고 또 사랑하시지도 않은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병자성사를 받을 때 신부님께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그러셨습니다. "평생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셨으면서도 하느님을 못 보 았다고 하십니까? 자, 여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하며 성체를 영해 주시는데 형제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다면서 지나온 생애 대한 감사와 회개를 눈물로써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필립보가 예수님께 "아버지 좀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꿈 속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2천 년 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느님만의 특별한 존재 방법으로 우리 앞에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뵈지 못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마 음과 신앙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천의 믿음을 활짝 엽시다.

자료출처: 가톨릭 신문

성모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도.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에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 당 소 식

◎ 축하합니다.

5월 9일 미사 중에 박지우 마리아, 김현지 레지나, 박두진 요셉 어린이들이 첫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지도해주신 이은희 이벳따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축하드립니다.

◎ 6월 사목회의 안내

▶5월 30일 미사 후 교육관
사목 위원과 단체장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 본당 청소년부 웹사이트 안내

www.kwpaul.com/youth

여름파트타임등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 5월 구역 모임 안내

▶키치너 22일 6시 야외 모임
▶브랜포드 28일 7시 박 순웅 형제덕
▶캠브리지 21일 7시30분 박 용대 형제덕
▶워털루 1구역 29일 6시 황 규영 형제덕
2구역 15일 6시 전 경숙 자매덕
3구역 22일 7시 박 영진 형제덕
4구역 29일 6시 최 우석 형제덕

◎ 5월 울뜨레아 안내

▶5월 23일 미사 후 교육관
▶안내: 회합 후 식사 예정
▶문의: 김현태 간사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시간변경)

▶일 시 ; 5월 21일(금) 오후 7시
▶장 소 : 이 은희 자매덕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6월 : 브랜포드
7월 : 캠브리지

◎ 안내/헌금 담당

▶6월 : 캠브리지 구역

▶7월 : 브랜포드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을 목이 터지게 외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만 있으면 지구촌 최대의 축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워터루 웰링톤 한인회에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맞아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태극 전사의 경기 단체관람 및 응원을 실시코자 하오니 동포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6월 12일 (토) 07:30 대 그리스 전
2. 장소 : 130 Duke St. E. Kitchener (KW한인장로교회)
3. 경기시작 1시간전 부터는 응원연습, 장기 자랑 등 Warming Up이 있습니다.
4. 기타:: 경기 당일 음료수 및 다과가 준비됩니다. 참석자들은 되도록 붉은셔츠를 착용해주시고, 태극기와 응원도구(북, 팽가리 등등)의 지참을 적극 환영합니다.
5. 문의: 연락처519-497-7634, 허홍구/

한인회 웹사이트:www.kca-ww.org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5월 9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교 무 금 : \$	69(100)
감사헌금 : \$	154(1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	825.00)
합 계 :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20호

2010. 5. 16.

주님승천 대축일

해설 박 명옥 차주 해설 이 명희

성 가

입 당 (137) 부활하신 주 예수
봉 헌 (213)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 할때
성 체 (498) 예수여 기리리다
퇴 장 (140) 주의 승천 찬미하네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승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 계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움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분을 증언해야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독 서

5월 16일 고덕근 고세형
5월 23일 이동기 이정숙

봉 헌

5월 16일 류무열 최희수
5월 23일 고덕근 고세형

복 사

5월 16일 류지현 이수민
5월 23일 안아림 김근영